

7/25(월) 이사야 1-5장 오라,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!

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셨습니다(1:18).

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, 창기라고 부르십니다(1:10, 21).

썩고 악취 나는 포도, 완전히 망한 농사라고 탄식하십니다(5:2).

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, 대적이 되었습니다(1:24).

당시 백성들은 이사야의 선포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.

남 왕국은 웃시야 왕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부강했고(6:1, 대하26:1-15),

물질적으로 번영했으며, 각종 제사와 예배들이 풍성했습니다(1:11).

백성들은 말씀을 모두 <이행>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.

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<삶>에 대해 물으셨습니다.

백성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극진했습니다(잠6:16-19).

이 극진함도 사실 종교적인 자기만족에 가까웠습니다(1:12-14).

기도하며 펼친 손에는 폭력의 피가 가득하고(1:15, 23, 3:9, 13-15, 5:8),

한편에는 울부짖음이, 한편에는 사치와 허영이 넘쳤습니다(3:16-26, 5:12).

선악이 전복되고 예언자의 선포들은 무시되었습니다(5:19).

정의 대신 포학이, 공의 대신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.

(5:7, 히) 미슈파트/미스파흐, 체다카/체아카)

정의와 공의 없는 신앙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(1:21, 29).

하나님과의 관계와 진심은 삶과 일상에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.

이스라엘은 아무 동산에서, 아무 나무를 향해 예배하는 것과

별반 다를 것 없는 제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.

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번영하며 영적이라 자부하던 때,

하나님은 심판과 멸망, <사형>을 언도 하십니다(1:31, 3-4장).

나의 신앙과 삶은 일치합니까?

❶ 계명 준수를 넘어,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?

❷ 나 스스로의 평가와 가족(동료/지인)들의 평가, 하나님의 평가가 일치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이사야 1-5장